

05 초등 학부모용

중학교 가기 전 이것만

초6 겨울 점검표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숫자부터	2
02 무엇이 다른가	3
03 겨울에 할 것	4
04 점검표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중3 수학 보통학력 이상 **49.6%**, 기초학력 미달 **14.9%** — 2017년 이후 최고치
- ◆ 초등 시험과 중학교 시험이 다른 세 가지 (범위·시간·부분 점수)
- ◆ **초6 겨울에 할 일의 차례** — 진도보다 「시험을 한 번 치러 보는 것」이 먼저인 까닭
- ◆ 공부 여섯 · 생활 넷, 인쇄해서 붙이는 **점검표 열 가지**

01 · 숫자부터

중학교에서 갈리는 것은 수학입니다

「중학교 가면 잘하겠지요.」

초6 겨울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.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저절로 잘해지지 않습니다. **초등에서 안 갈리던 것이 중학교에서 갈립니다.** 그리고 갈리는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.

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마다 전국 표본으로 재는 시험이 있습니다. **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**입니다. 2025년 결과를 보시겠습니다.

중3	보통학력 이상	기초학력 미달
국어	64.5%	—
영어	60.5%	—
수학	49.6%	14.9%

국어와 영어는 열에 여섯이 보통학력을 넘습니다. **수학만 절반이 안 됩니다.** 49.6% 입니다.

그리고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아이가 **14.9%**입니다. **일곱에 하나꼴**입니다. 작년 12.7% 에서 늘었고, 이 평가가 표집으로 바뀐 입니다. 2025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뜻있게 나빠진 항목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. **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**

까닭은 단순합니다. **수학은 앞을 모르면 뒤를 못 하기 때문**입니다. 국어는 지난 단원을 놓쳐도 이번 단원을 읽습니다. 수학은 안 됩니다. 한 번 놓치면 다음 단원이 통째로 막히고, 그게 학기 내내 이어집니다. **중학교 3년은 그 격차가 벌어지기에 충분한 시간**입니다.

고2까지 가면 수학 보통학력 이상이 56.2% 로 다시 올라갑니다. 성적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. **그 사이에 많은 아이가 수학을 놓아 버렸기 때문**입니다.

출처: 교육부·한국교육과정평가원,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(2026-06-23 발표). 표본 중3·고2 25,992명 / 539개교 (표집평가)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초등 시험과 중학교 시험

초등에서 90점을 받던 아이가 중1에서 70점을 받습니다. 실력이 줄어서가 아닙니다. **재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**입니다. 셋이 달라집니다.

하나 — 범위가 넓어집니다

초등 단위평가는 한 단원을 봅니다. 중학교 지필은 **두세 달치를 한 번에** 봅니다. 앞부분을 잊은 채 시험장에 앉으면,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**복습이 실력의 절반**이 됩니다.

둘 — 시간이 모자랍니다

초등에서는 시간이 남습니다. 중학교 수학은 **45분에 20문항 안팎**입니다. 한 문제에 두 분 남짓입니다. 아는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뒤를 못 풉니다. 「풀 수 있다」와 「시간 안에 푼다」는 **다른 능력**이고, 뒤엎것은 연습해야 생깁니다.

셋 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

서술형이 아니면 과정이 맞아도 답이 틀리면 0점입니다. 초등에서 「거의 맞았는데」로 넘어가던 것이 중학교에서는 점수가 안 됩니다. **계산 실수가 처음으로 성적이 되는 시기**입니다.

이 셋은 진도를 더 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. **겪어 봐야 늘어납니다.**

03 · 겨울에 할 것

진도보다 먼저인 것

초6 겨울에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**중1 진도**입니다. 한 학기 정도 미리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. 다만 그것만 하면 위 셋이 그대로 남습니다.

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.

차례	무엇을	얼마나
1	시험을 한 번 치러 본다 — 시간을 재고, 답안지에 옮기고, 틀린 것을 고친다	두세 번
2	초등 6년치 중 구멍난 단원을 찾아 메운다 (분수·비율·도형)	2~3주
3	중1 1학기 한 학기만 미리 본다	나머지

1번을 먼저 두는 까닭이 있습니다.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러 본 아이는 중1 첫 시험에서 **아는 것을 틀립니다**. 이름을 안 쓰고, 답을 밀려 쓰고, 한 문제에 십 분을 씁니다. 이걸 실력이 아니라 처음이라서 생기는 일이고, **한 번 겪어 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**.

2번은 티가 안 나지만 제일 값이 큼니다. 중1 수학은 초등 분수·비율 위에 섭니다. 거기가 비어 있으면 중1 진도를 아무리 나가도 시험에서 무너집니다.

04 · 점검표

중학교 가기 전 열 가지

인쇄해서 초6 겨울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.

공부에 대해

- ☐ 시간을 재고 **시험처럼** 풀어 본 적이 있는가
- ☐ **분수 계산** 을 막힘없이 하는가 (통분·나눗셈까지)
- ☐ **비와 비율** 을 문장 속에서 알아보는가
- ☐ 도형의 **넓이·부피 공식** 을 외워 쓰는가
- ☐ 틀린 문제를 **다시 풀어** 맞히는가
- ☐ 모르는 것을 **물어보는가** — 모른 채 넘기지 않는가

생활에 대해

- ☐ 알림장·준비물을 **스스로** 챙기는가
- ☐ 숙제를 **말 안 해도** 시작하는가
- ☐ 하루에 **혼자 앉는 시간** 이 있는가
- ☐ 잠자는 시간이 **일정한가**

공부 여섯 중 넷, 생활 넷 중 셋이면 준비가 된 편입니다. 생활 쪽이 셋 미만이면 **진도보다 그쪽이 먼저**입니다 — 중학교는 챙겨 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곳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초6 겨울에 학원을 늘리시는 분이 많습니다. 저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. 그런데 **이 시기에 가장 값이 큰 것은 진도가 아니라 「시험을 한 번 겪는 것」**입니다. 그건 학원을 세 곳 다녀도 안 생기고, 한 곳에서 두세 번이면 생깁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**초6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****Q. 중1은 시험이 없다던데, 그럼 중2부터 하면 되나요?**

자유학년제로 **중1 성적이 고입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.** 그런데 「안 들어간다」와 「안 해도 된다」는 다릅니다.

첫째, **학교에 따라 중1 1학기부터 내신을 세는 고입 전형이 있습니다.** 과학고 중에 그런 곳이 있으니 목표가 있으시면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둘째, 중1에 쌓지 않은 것은 중2에 그대로 나타납니다. 수학은 특히 그렇습니다. **중1을 비워 두면 중2에서 두 배로 듭니다.**

Q. 중1 진도를 어디까지 빼 놓아야 하나요?

한 학기면 충분합니다. 1학기 과정을 한 번 훑어 두면 학교 수업이 낯설지 않아 여유가 생깁니다.

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. 중1 2학기까지 미리 나가면 **학교 진도가 따라왔을 때 이미 「아는 것」이 되어** 수업에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그때쯤이면 앞서 배운 것을 잊습니다.

남는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**초등 구멍을 메우는 데** 쓰십시오. 그쪽이 중1 성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중학교에서 갈리는 것은 **얼마나 앞서 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 비었느냐**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시 자료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. 자유학년제 운영과 고입 내신 반영은 지역·학교마다 다르니 확인하십시오.